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 2016.8.3(수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류성재 사무관(02-2100-2835) 장원석 사무관(02-2100-2836)

제 목 :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 관련 향후 계획

- ☐ 금융위는 빚은 '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' 바람직한 금융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중
 -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(2년)가 짧아,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'전액'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
- ☐ 다만, 전세대출 '일부'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는 줄이고*,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**도 존재
 - * 1억 전세자금대출(금리 3%)을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시
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0.9억원 → 2년간 1,000만원 목돈 조성 효과
 - **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감소
총 이자부담(1억, 금리 3%, 2년 만기) : (일시상환) 600만원 → (10% 분할상환) 572만원
 - 또한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,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
 - * 금리비교(% , 16.6월, 은행 신규 취급) : (전세대출) 2.93 > (정기적금) 1.68
- ⇒ 따라서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'차주가 원하는 만큼'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
- ☐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하여 발표할 예정임